

의사결정 과정과 통합적 복잡성: 다원적 가치갈등과 역할과의 관계

구지숙 · 민경환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연구소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가치들이 대립하고 있는 정책결정의 상황에서 추론의 양식과 협상안의 통합성 정도를 예측해주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진보성-보수성의 개인차변인과 문제 이슈가 유발시키는 가치간 갈등의 정도 그리고 그 가치들의 중요도가 추론양식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검사해 보았다. 그 결과, 문제의 이슈가 유발시킨 가치간 갈등이 클수록 그리고 그 가치들이 중요할수록, 추론의 통합적 복잡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진보성-보수성의 개인차변인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통합적 복잡성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치다원성 모델의 예측들을 모두 지지하는 것들이다. 연구 2에서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 추론의 통합적 복잡성 수준과 협상안의 통합성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사람들은 더 통합적으로 복잡한 추론을 하였고, 통합적 복잡성이 높을수록 더 통합적인 협상안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통합적 복잡성, 가치간 갈등, 보수성, 역할, 통합적 해결

사람들은 크고 작은, 중요하고 사소한 결정을 끊임없이 내리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결정들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의사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으며 한 가지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중 어떤 가치들은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경제적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 그리고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권리'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등강을 둘러싼 수자원 공사와 환경 단체간의 대립에도 '편의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환경 보호'의 가치

들이 갈등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대립하는 가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가치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하는 추론의 과정(trade-off reasoning)에서 높은 통합적 복잡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자에 있어서 매우 어렵고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통합적 복잡성 코딩체계를 적용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한 여러 연구들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양식의 추론을 하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그러한 추론의 양식을 취하도록 촉진시키는 상황적 요인도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Tetlock, 1981, 1983a, 1986;

* 이 연구는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Tetlock, Hannum, & Micheletti, 1984).

통합적 복잡성이란 개인이 정보처리를 할 때 두 가지의 인지적 양식변인, 즉 통합과 변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 변별이란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차원들을 고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어떤 정책안들을 하나나 두 가지의 가치평가적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방식의 정보처리이다. 즉 제시된 정책안을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좋은 사회주의적 정책”과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심지어는 더 심화시키는 “나쁜 자본주의적 정책”의 두 가지 범주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호·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도의 변별적 접근을 하는 정치인은 서로 다른 정책들이 서로 대립되는 효과들을 낳을 수 있어서 단일한 평가의 차원 상에서 손쉽게 분류될 수 없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정책은 전체 국민생산, 금리, 인플레이션, 실업, 수지의 균형 면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통합이란 이렇게 서로 변별된 차원들 간에 복잡한 연계를 발전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통합의 복잡성은 의사결정자가 서로 변별되는 특성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지(낮은 통합성), 혹은 일차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면서 작용한다고 보는지(즉 A와 B의 효과는 C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중간 정도의 통합성), 혹은 다각적으로 서로 부수적인 패턴으로 작용한다고 보는지(높은 통합성)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의 좋은 예는 가치가 서로 상충됨을 언급하는 것, 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실업율을 감수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왜 서로 다른 각도로 보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통합의 징표이다. 사람들이 낙태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은 헌법과 종교, 그리고 의료 이슈들에서 개인이 취하는 입장들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그 예가 된다(Tetlock, 1993).

진보성-보수성과 통합적 복잡성: 가치다원성 모델

추론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으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보다 구체적으로 진보성-보수성 차원을 들 수 있다. 미국 상원에서 이루어진 토론내용에 통합적 복잡성 코딩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진

보적이거나 중도적인 의원들은 보수적인 의원들에 비하여 더 복잡적이고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고려·선택하는 추론 양식을 나타내었음이 밝혀졌다(Tetlock, 1981, 1983a; Tetlock et al., 1984). 이는 우익들이 중도파나 좌익 응답자들에 비하여 보다 독단주의적이고 인지적으로 단순하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과(Stone, 1980; Wilson, 1973)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와 통합적 복잡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우익의 경직성(rigidity-of-the-right)” 가설과 “사상가(ideologue)” 가설을 들 수 있다. 우익의 경직성 가설은 권위주의적 성격 연구들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온 것인데,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태도는 차아방어적인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정치적 우익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도파나 좌익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계관에 상충되는 반대토적 정보를 받을 때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McClosky, 1967). 사상이 가설은 좌익 쪽이든 우익 쪽이든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도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사고양식을 나타낸다는 가설이다. 우익의 경직성 가설과 사상이 가설을 비교하기 위하여 Tetlock(1984)은 영국의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Putnam(1971)이 실시한 비공개 면접 내용을 입수하여 복잡성과 이데올로기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분석한 상원의원의 공개적인 정책연설은 그들의 사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수사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의 상원의원들 중에는 상당히 좌익에 치우친 사람들이 없으므로 좌익과 우익에 대한 공평한 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면접이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사건을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영국의 의원들은 미국의 의원들에 비하여 그 사상적 입장이 훨씬 광범위하였다. 의원들을 극단적인 보수파, 중도적인 보수파, 중도적인 사회주의파, 극단적인 사회주의파로 나누어 통합적 복잡성을 분석해 본 결과, 중도적인 사회주의파가 가장 복잡한 추론양식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도적인 보수파가, 그리고 극단적인 보수파와 사회주의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신념의 내용 면에서 서로 가장 차이가 나는 극단적인 보수파와 사회주의파가 가장 비슷한 추론양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상이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이지만, 사상이 가설만으로는 왜 중도적인 보수파보다는 중도적인 사회주의자들의 통합적 복잡성이 더 높은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

Tetlock(1984)은 이를 가치 다원성 모델(value pluralism model)로 설명하였다. 가치다원성 모델에서는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기저에는 핵심적 혹은 궁극적 가치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가치들은 행정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평등, 개인의 자유, 범죄의 통제, 국가적 안보 등등). 여러 가지의 이데올로기들은 개인이 높은 우선 순위를 부과하는 가치들의 유형에 있어서 서로 다를 뿐 아니라(Rokeach, 1973),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들이 서로 얼마나 대립을 이루고 있는가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단일적인 이데올로기에서는 우선 순위가 하나 혹은 상당한 일관성을 나타내는 한 세트의 가치들에만 부과되어 있다. 다원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우선 순위가 여러 가치들에 부과되어 있고, 그 가치들은 서로 강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장 다원적인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잡한 양식의 추론 과정, 즉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적 복잡성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의 정책결정을 논의할 때, 진보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민주당원들이야말로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자유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 모두에 중요성을 부과하는 사람들이다(Rokeach, 1973, 1979). 그러므로 이들은 정책 입안이 두 가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두 가치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할 심리적 압력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하게 된다.

가치가 얼마나 다원적인가에 따라 개인이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는 빈도와 그러한 불일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략의 복잡성 정도가 달라진다. 중도적인 좌익이나 중도파들이 이슈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다 통합적으로 복잡한 방식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을 옹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극단적인 우익이나 좌익에 비하여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자유, 경제적 성장과 환경보호, 시민의 자유와 범죄의 통제를 모두 중요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모델의 틀 내에서는 어쩌서 중도적 보수파에 비하여 중도적 사회주의자들이 더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중도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여러 이슈들에서 가장 다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Snideman & Tetlock, 1986).

Tetlock(1986)은 가치 갈등이 통합적 복잡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실험실 연구에서 입증해 보이고, 일단 가치갈등의 역할을 통제하고 나면 추론양식의 개인차 변인은(진보성-보수성) 통합적 복잡성을 예언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차 변인은 여러 이슈들에서의 응답자의 평균 통합적 복잡성수준이었다. 실험실 연구에서 우익의 경직성 가설과 사상이 가설의 부분적 타당성도 동시에 검증해 보고자 한다면, 통합적 복잡성의 평균은 적절한 개인차 변인이 될 수 없다. 이념적 지향의 진보성-보수성의 측정이 보다 타당한 개인차 변인을 제공해줄 것이다.

역할과 통합적 복잡성

의사결정자의 추론양식 및 통합적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치 갈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상황적 요인으로서 의사결정자가 맡은 역할이 통합적 복잡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구자숙, 김정현, 1999; Suedfeld & Rank, 1976; Tetlock, 1981; Tetlock et al., 1985). 혁명에 성공한 지도자들의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혁명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Suedfeld & Rank, 1976) 혁명 이전에 비해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복잡성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혁명 지도자들은 정권을 탈취하기 전에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정치관을 지지자들에게 뚜렷이 인식시키고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단순하고 절대적인 방략을 선택하지만, 일단 정권을 이양받은 후에는 다양한 계층의 대립되는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하므로 보다 융통성있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이전과 이후의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Tetlock, 1981)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슈의 제시가 단순하게 이루어

어지다가 선거 후에 집무를 시작하면 이슈들에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게됨이 밝혀졌다.

위와 같이 정책입안자의 역할(policy-making role)은 통합적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야당의 역할(opposition role)은 통합적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대립되는 가치들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희생을 시켜야 하며(Katz & Kahn, 1978), 자신이 택한 입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 시켜야 한다. 주요한 유권자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적 정책을 고안해 내기 위해서는 사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복잡한 사고를 해야하며, 정책 결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양방향 적인 호소를 해야만 호의적인 방향으로의 태도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연설에서도 통합적으로 복잡한 수사법을 사용해야 한다(McGuire, 1985; Tetlock, 1983c). 야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요 목적이 반정부적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정부에 대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잘 기억될만한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족하다. 야당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결점만을 찾아내고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장점만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할에서는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나 언어의 구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통합적 복잡성과 의사결정 방식간의 관계

통합적 복잡성이 정보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결과와 반응을 다양하게 예측하며, 자신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면, 어떠한 수준의 통합적 복잡성을 나타내는가가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주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통합적 복잡성이 의사결정의 방식과 유의한 연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통합적 복잡성 수준은 긍정적인 방향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자 혹은 의사결정자들이 통합적 복잡성이 낮은 구조로서 사건을 시각한다면 상대방의 관점을 취해볼 수 없게 되고 흑백론적인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상황이 행정적인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쟁

적인 행동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김정현, 구자숙, 한준, 1999; Tetlock, 1985). 만일 정책결정자들이 높은 통합적 복잡성 수준을 유지한다면 광범위한 정보의 탐색이 이루어지고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정보처리를 하게된다. 양측의 이익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 보게되어 타협적인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결과와 반응을 다양하게 예측하며, 자신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해결책의 도출이 촉진되는 것이다(Pruitt & Lewis, 1975).

Churchill과 Hitler, 그리고 Stalin의 군사적 공격성, 위협을 무릅쓰는 성향, 그리고 위기에의 탄력적인 대처 성향을 분석해 본 연구에 의하면(Satterfield, 1995) 낙천성의 증가와 통합적 복잡성의 감소는 공격성과 위협 부담 행동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반면 낙천성과 통합적 복잡성이 동시에 증가할 때에는 주요한 스트레스 상황에 접했을 때 탄력적인 대처행동이 나타났다. 다양한 대처반응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통합적으로 복잡한 양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혹은 위기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끔 해준다.

펀드 매니저들의 정보환경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Stabel, 1978)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탐색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그리고 넓은 범위의 정보를 사용하는가는 통합적 복잡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보의 부하량이 증가하면서 정보 탐색은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통합적 복잡성이 높은 의사결정자들은 정보의 부하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문제해결(타협안)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Streufert, Suedfeld, & Driver, 1965).

위와 같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통합적 복잡성을 유지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검토해 봄으로써 통합적 복잡성과 의사결정의 방식간의 관계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들의 가치간 갈등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이 원래 갖고 있는 진보성-보수성의 성향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해 보고, 맡는 역할이 바뀔 때 따라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통합적 복잡성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적 조건에서 살펴보는 데, 본 연구에서 다룰 상황들은 노·사간의 대립상황,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상황들이다. 또한 이런 추론양식의 차이에 따라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미국의 상원의원들과 영국의 하원의원과 같은 정치적 집단에 대한 문헌 연구(archival studies)로는(Tetlock, 1981, 1983a, 1984) 가치갈등이 인지적 작용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중도적인 좌익이나 중도파들이 가장 통합적으로 복잡한 추론양식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가치다원성 모델의 예언과 일치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가치의 갈등은 보다 통합적으로 복잡한 추론양식을 사용하게끔 이끈다는 가치다원성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가치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결과가 가치다원성 모델의 예언과 일치하므로, 가치다원성 모델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고 추론할 뿐이다.

Tetlock(1986)의 실험 연구에서는 가치갈등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추론 과정에서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립하는 가치들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가 유사할수록 그리고 그 대립하는 가치들이 개인에게 중요할수록, 정책 선호 결정 과정에서 통합적 복잡성이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의 틀에 개인차 변인인 진보성-보수성과 또 하나의 상황적 변인, 즉 역할을 포함시킴으로써, 통합적 복잡성에 각각의 변인이 독립적으로(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현재 개인의 진보성-보수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개인차 변인이 추론과정에서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알아본 연구도 거의 없다. 의원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통합적 복잡성의 관계를 문헌기록 상에서 탐색한 연구들에서는 의원들이 과거 정책입안 시 어느 쪽으로 투표를 하였는지의 기록으로 이념적 성향을 분류하였다(Tetlock, 1981, 1983a, 1984; Tetlock et al., 1984).

또한 실험실에서 참가자들이 정책결정이나 협상에서 맡는 역할을 변화시켜, 그 역할의 변화가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도 거의 없다. 이전의 문헌분석 연구들에서는 역할의 변화와 통합적 복잡성간의 관계에 대하여 측정이 아닌 추론이 이루어졌을 뿐이다(구자숙, 김정현, 1999; Suedfeld & Rank, 1976; Tetlock, 1981; Tetlock et al., 1985). 실상 정책 결정 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입장으로서의 역할변화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 자체가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 이때 역할의 변화가 새로운 시각을 채택하게 하여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역할의 변화에 따라 인지적 자원이 분산되므로 통합적으로 단순한 사고를 하게끔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의 변화방향을 통제함으로써 추론 양식의 차이가 어디서 유발되는지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이러한 추론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까지를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사고의 양식이 어떠한 의사결정으로 이끄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는 점이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참가자들의 진보성-보수성과 가치갈등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1의 주요가설 및 예언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보수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통합적 단순성을 나타낼 것이지만, 이런 효과는 가치갈등을 통제하고 나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2) 문제 이슈에서 대립되는 두 가치들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가 유사할수록 통합적 복잡성은 증

가할 것이다. 서로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가치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참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서로 중요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면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는 버리는데 있어서 큰 갈등이 없을 것이다. (3) 문제 이슈에서 대립되는 두 가치들이 개인에게 중요할수록(즉 평균 중요도가 클수록) 통합적 복잡성은 증가할 것이다. 중요한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에 비하여 더 큰 갈등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방법

실험 참가자

서울대학교에서 인간관계의 심리학과 사회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부생 138명이 집단으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138명 중 94명이 남자, 44명이 여자였으며, 이들의 연령 평균은 21.03세였다.

절차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12개의 항목들로 질문을 구성한 후, 이중 서로 다른 가치들이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는 질문들을 추려내기 위하여 Tetlock의 연구(1986)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즉, 20명의 평정자들에게 12가지 이슈관련 질문들에 대하여 가치내용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들은 환경보호, 국가안보, 의료보험제도, 부의 재분배, 주한미군주둔, 범죄 통제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들이었다. 평정자들에게 각 질문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가상적인 응답자에 대해서 인상을 형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평정자들은 이 가상적 응답자들의 응답을 보고 이들의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추론하였다(예: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립공원부지나 그린벨트 등에 대한 채굴과 개발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면, 이 응답자가 다음의 가치들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평정하여 주십시오”). 평정자들은 “이 가치는 응답자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 가치는 응

1) 12가지 질문들에 어떤 가치들이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 가치들간의 대립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이 내용분석에 참가한 평정자들은 본 연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학부생들로 구성되었다.

답자에게 조금 중요하다,” “이 가치는 응답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없다”의 네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였다. 평정자들이 가상적 응답자들에 대해 평정한 가치들은 Rokeach의 가치조사(Rokeach, 1973)에서 추출한 18가지의 최종적 가치(terminal values)들이었다.

연구 1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각 이슈 영역에서 가치 갈등이 발생한 형태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정자간 일치도가 있었던 문항들로 5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90%의 평정자들이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립공원부지나 그린벨트 등에 대한 채굴과 개발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안락한 삶에 높은 가치를 둔다고 추론하고, 95%의 평정자들이 그런 응답자는 아름다운 세상이나 자연에는 낮은 가치를 둔다고 추론하였다. 반대로 100%의 평정자들이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립공원부지나 그린벨트 등에 대한 채굴과 개발을 더 허용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한 응답자는 아름다운 세상이나 자연에는 높은 가치를 둔다고 추론하고, 95%의 평정자들이 이런 응답자는 안락한 삶에는 낮은 가치를 둔다고 추론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5문항과 각 문항에서 대립하고 있는 가치들은 (1) 국정원이 외국이나 북한의 간첩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열어 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대립가치: 국가안보,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vs. 자유, 독립성) (2) 비록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의 방위비를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국가안보 vs. 안락한 삶) (3)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사나 병원의 진료비 책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 동등한 기회 vs. 자유) (4)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경우일 지라도 언론과 발언의 자유는 꼭 수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국가안보 vs. 자유) (5)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립공원부지나 그린벨트 등에 대한 채굴과 개발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안락한 삶 vs. 아름다운 세상, 자연).

그 다음에는 연구의 본 단계로 넘어가서 실험참가자

들은 (1) 진보성과 보수성을 측정하는 Kerlinger의(1959) 사회적 태도 진술문 척도(social attitudes statement scale)와 (2) Rokeach의 가치조사(value survey)에 응답하였다. Rokeach의 가치조사는 사람들이 국가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개인의 안락 등의 18가지 최종적 가치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도구이다(Rokeach, 1973). 마지막으로 실험참가자들은 (1) 앞에서의 사전검사 과정에서 선택된 5개의 질문에 대해, 한 질문 당 5분에 걸쳐 가능한 한 자세하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었다. 또한 (2)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와 아니오의 입장을 표명하고, (3)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확신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추론과정의 분석

통합적 복잡성 코딩을 위하여 세명의 코더들이 약 2주에 걸쳐 서로간의 합치도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각각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단락들에 대하여 통합적 복잡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은 Baker-Brown 등의 채점 매뉴얼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통합적 복잡성을 1에서 7점 척도 상에서 채점하는 것이었다(Baker-Brown, Ballard, Bluck, de Vries, Suedfeld, & Tetlock, 1992). 1점은 변별(differentiation)이나 통합(integration)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차원적이고, 가치적용적이고, 평가적으로 일관된 규칙이 사용된다. 3점은 중간정도 혹은 높은 정도의 변별은 보이지만 통합의 징후가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평가를 할 때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을 사용하지만 그 차원들 간의 개념적인 연관성은 고려하지 못한다. 5점은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변별과 중간 정도의 통합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평가의 여러 가지 차원들 간에 개념적인 연관성이 언급된다. 이러한 통합적인 인

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두 개념들을 연결하는 상위의 범주를 확인하는 것, 서로 다른 차원들 간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간파하는 것, 서로 대립되는 목표나 가치의 교환(trade-offs)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혹은 상호작용 효과나 어떤 사건의 원인들을 명세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7점은 높은 정도의 변별과 높은 정도의 통합을 나타낸다.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이 서로 다른 차원들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체계 분석에서는 통합 규칙이 일반화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어 주는 이차적인 통합 원칙들이 유도되어져 나온다. 2, 4, 6점들은 개념적인 구조에서 과도기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변별과 통합의 차원들이 명확하고 완벽하게 명시되기보다는 암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세명의 코더들 간의 합치도를 구해본 결과 상당히 높은 평정자간 합치도가 나왔다, 평균 $r=.92$. 코더들 간에 다른 평정이 나온 것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였다.

결과 및 논의

통합적 복잡성 변인 분석

실험 참가자들의 진보성-보수성³⁾과 가치갈등이 통합적 복잡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일변량 회귀분석과 중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보성-보수성의 개인차 변인이 추론양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보기 위해 단일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보수성은 언론과 발언의 자유수호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이슈에서 통합적 복잡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이슈에서 $p=.08$, 나머지는 모든 $ps<.001$. 사람들은 일반적 보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합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에는 진보성-보수성의 개인차변인과 가치다원성 모델에서 규정하는 통합적 복잡성의 예측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치다원성 모델의 예측변인은 (1) 주어진 이슈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가치에 응답자들이 부여한 중요도가 유사한 정

2) Kerlinger의 사회적 태도 진술문 척도는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태도의 근간이 되는 진보성과 보수성의 일반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2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보성의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oefficient α)는 .84에서 .85에 이르며, 보수성의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84에서 .89에 이른다(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9).

3) 사회적 태도 진술문 척도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응답을 보수성으로 환산시켜 평균을 내었을 때 그 평균값은 7점 척도 상에서 4.18, 표준편차는 .79로 나타났다.

도(높은 가치간 갈등), (2) 그 대립하는 가치들이 응답자에게 중요한 정도(두 가치의 중요도 평균), 그리고 (3) 가치의 중요도 유사성과 평균 중요도간의 상호작용의 세 가지였다(Tetlock, 1986). 표 2에 각 이슈에서 대립하는 가치들 간의 평균 중요도 유사성과 그 가치들의 중요성 평균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표 3에는 그 중다 회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표 1. 보수성과 통합적 복잡성: 회귀분석

이슈영역	R ²	B	β	t	p
국정원의 사생활 감시문제	.02				
예측치: 보수성		-.26	-.15	-1.73	.08
방위비 책정문제	.34				
예측치: 보수성		-.67	-.58	-8.09	<.001
병원진료비 책정제한 문제	.22				
예측치: 보수성		-.55	-.47	-5.98	<.001
언론과 발언의 자유문제	.001				
예측치: 보수성		.05	.04	.40	ns
국립공원의 개발문제	.11				
예측치: 보수성		-.35	-.34	-3.96	<.001

우선, 보수성의 경우 가치간 갈등(대립가치의 중요도 유사성) 변인과 같이 포함시켜 분석하였을 때, 방위비 책정의 이슈만을 제외하고는, $p < .001$,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치간 갈등의 경우 한 이슈(언론과 발언의 자유)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ps < .005$. 대립되는 가치의 중요도 변인도 모든 이슈에서 응답자 사고의 통합적 복잡성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s 는 .06에서 .001이 하까지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음). 즉 사람들은 (1) 그 정책 이슈가 중요도 면에서 유사한 대립가치들을 활성화시킬 수록(그 정책 이슈에서 대립하고 있는 가치간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2) 그 정책 이슈가 응답자의 가치위계에서 둘 다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가치들을 활성화시킬 수록(정책 이슈에서 대립하고 있는 가치들이 모두 중요한 것일수록) 통합적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치간 갈등의 정도와 가치들의 중요성 평균의 상호작용 요인도 한 이슈만을 제외하고(국정원 감시 이슈) 다른 모든 이슈에서 통합적 복잡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모든 $ps < .01$.

표 2. 각 이슈별 대립가치들의 중요도 유사성 평균과 중요도 평균

이슈영역	중요도 유사성 평균	가치 중요도 평균
국정원의 사생활 감시문제	7.35 (4.53)	11.64 ^a (3.25) ^b
방위비 책정문제	6.98 (4.46)	10.59 (3.26)
병원진료비 책정제한 문제	5.82 (4.58)	9.46 (3.50)
언론과 발언의 자유문제	7.35 (4.53)	11.64 (3.25)
국립공원의 개발문제	6.14 (4.34)	9.91 (3.21)

^a 가치 중요도와 중요도 유사성 모두 수치가 적을수록 더 중요하고 더 유사한 것을 나타냄.

^b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표 3. 통합적 복잡성 측정치의 중다 회귀분석

이슈영역	R ²	B	β	t	p
국정원의 사생활 감시문제	.63				
예측치: 보수성		-.008	-.005	-.083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21	-.70	-5.58	<.001
가치중요도 평균		-.08	-.18	-2.71	.008
상호작용		.001	.02	.127	ns
방위비 책정문제	.60				
예측치: 보수성		-.47	-.41	-6.80	<.001
가치중요도 유사성		-.14	-.50	-3.09	.002
가치중요도 평균		-.18	-.48	-7.89	<.001
상호작용		.01	.52	3.20	.002
병원진료비 책정제한 문제	.52				
예측치: 보수성		-.07	-.06	-.69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18	-.65	-7.79	<.001
가치중요도 평균		-.04	-.12	-1.88	.06
상호작용		.008	.25	3.9	<.001
언론과 발언의 자유문제	.35				
예측치: 보수성		-.10	-.07	-.85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06	-.21	-1.39	ns
가치중요도 평균		-.20	-.55	-7.21	<.001
상호작용		.01	.37	2.65	.009
국립공원의 개발문제	.31				
예측치: 보수성		-.08	-.08	-.76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17	-.66	-5.35	<.001
가치중요도 평균		-.06	-.17	-2.17	.03
상호작용		.01	.45	4.38	<.001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가치다원성 모델의 예측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단순한 양식의 추론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나타났지만, 이러한 개인차 변인보다는 주어진 이슈에서 대립 가치

들이 유발하는 갈등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이슈와 관련된 가치갈등이 일반적인 개인차보다 추론의 복잡성을 예언하는데 훨씬 더 신뢰롭고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가치다원성 모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보수적인 우익과 같이 특정한 이념지향적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단순하고 경직된 사고양식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슈에 관한 추론인가, 그리고 그들 자신의 가치 우선순위가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 경험하는 갈등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때로는 보수적인 우익의 사람들이 더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다 더 그리고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서는, 이들이 더 통합적이고 복잡한 추론을 할 수도 있다.

확신도 변인 분석

응답자들이 각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대한 확신도를 평정한 것이 또 하나의 종속변인이 되었다. 확신도는 통합적 복잡성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었다(5가지 이슈들에 걸친 상관의 평균은 $r(124) = -.35, p < .001$ 이었음). 즉 더 확신에 찬 사람들일수록 단순한 양식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수성의 개인차 변인이 확신도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 보기 위하여 단일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병원진료비 책정 제한 이슈와 국립공원개발의 이슈에서만 보수성이 확신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9$ 와 $.42$), $t(129)$ 는 각각 3.45와 5.26, p 는 .001과 $< .001$.

마지막으로 개인차변인과 가치다원성 모델의 예측변인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가치중요도 유사성은 한 이슈만을 (언론과 발언의 자유)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모든 이슈들에서 응답자의 입장 결정에 대한 확신도를 유의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ps < .01$. 즉 정책 이슈에서 대립하는 가치들의 중요도가 유사할수록(가치간 갈등이 클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확신이 덜했다. 가치의 중요도 평균은 세 이슈에서는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나, $ps < .001$, 두 이슈에서는(국정원 감시와 국립공원 개발) 유의하지 않았다. 가치 중요도

유사성과 가치중요도 평균의 상호작용은 두 이슈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세 이슈에서는 유의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보수성의 개인차 변인은 확신도의 예언에 거의 공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위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도를 가장 일관적으로 예언해 주는 변인은 가치간 갈등의 정도이다. Tetlock, Hannum, 그리고 Micheletti(1984)의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의원들은 정치적 입지가 바뀔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내적으로 보다 일관된 가치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상황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추론의 양식이 잘 변화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확신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일관된 가치체계의 특성상 가치갈등을 덜 경험하기 때문인 것

표 4. 확신도 측정치의 종다 회귀분석

이슈영역	R ²	B	β	t	p
국정원의 사생활 감시문제	.58				
예측치: 보수성		.13	.05	.94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17	.41	3.14	.002
가치중요도 평균		.007	.01	.17	ns
상호작용		-.02	-.39	-3.17	.002
방위비 책정문제	.36				
예측치: 보수성		.12	.07	.94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22	.54	2.62	.01
가치중요도 평균		.17	.30	3.88	<.001
상호작용		-.001	-.04	-.17	ns
병원진료비 책정제한 문제	.34				
예측치: 보수성		.125	.08	.81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14	.27	3.66	<.001
가치중요도 평균		.20	.52	5.39	<.001
상호작용		-.01	-.19	-2.60	.01
언론과 발언의 자유문제	.24				
예측치: 보수성		.21	.12	1.29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11	.27	1.65	ns
가치중요도 평균		.22	.47	5.83	<.001
상호작용		-.002	-.06	-.39	ns
국립공원의 개발문제	.39				
예측치: 보수성		.14	.08	.92	ns
가치중요도 유사성		.21	.51	4.49	<.001
가치중요도 평균		.01	.02	.24	ns
상호작용		-.004	-.10	-.96	ns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치관 갈등의 정도를 통제하였을 때 보수성의 개인차 변인이 확산도에 대한 예측력을 거의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통합적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언제나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되는 이슈의 영역에 따라 즉, 그 이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그 중요도가 아주 유사한 것들이라면 중도적인 사람들이나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확산도가 낮아질 것이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여러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맡는 역할이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 따라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타협점의 도달) 양식이 나타나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2의 주요 가설 및 예언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의사결정자가 맡는 역할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주어진 역할은 궁극적으로 협상안의 통합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통합적 복잡성 수준과 문제해결의 양식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적 복잡성은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통합적인 협상안의 산출로 이끄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방법

실험참가자

실험에 참가하겠다고 자원한 서울대학교 학부생 96명을(남자 66명, 여자 30명)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무선적으로 짝을 지워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절차

실험실에 두 명의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먼저 진보성과 보수성을 측정하는 Kerlinger의 사회적 태도 진술문 척도(1984)를 완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실험참가자들에게 두 진영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4가지 협상의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 상황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들을 선정한 것이었다. 연

구에 사용된 4가지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1) A 회사는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회사 경영진이 대립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최소한 15% 이상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회사 경영진은 만약 임금을 15% 인상하면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이 회사의 경쟁력이 전혀 없게 된다면 5% 이상 임금을 인상하여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2)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힘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예산 중에서 군비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줄여가면서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3) 정부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을 건설하고 댐 인근 지역을 수몰시켜야 한다는 계획을 입안 중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결정이 주변 지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향후 10년 내에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4)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한미안보 공동체체의 유지를 위해 미군의 주둔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미군의 주둔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실험참가자들은 두 상황에서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역할(예를 들면 정책 입안자나 회사측)을 맡게 하고, 나머지 두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역할을 바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성이 적은 역할(예를 들면 야당의원이나 노조측)을 맡아, 역할에 따라 각 이슈에 관하여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상대측에게 어떤 협상안을 제출할 것인지를 기술하였다.

추론과정의 분석

연구 1에서 분석을 담당하였던 세 명의 코더들이 독립적으로 참가자들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단락들에 대하여 통합적 복잡성을 평가하였다. 코딩방법은 연구 1에서와 같다. 세 명의 코더들 간에 합치도는 꽤 높게 나타나서 평균 상관관계가 .88이었으며,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더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채점에 대해서는 토론으로 해결하였다.

협상의 유형평가

서로의 입장이 대립되고 갈등이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결과 중 하나, 즉 타협 (compromise), 누가 이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에 합의, 그리고 통합적인 해결(integrative solution)로 이끌게 된다(Pruitt & Rubin, 1986). 타협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지점까지 후퇴를 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통합적 해결은 양측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통합적 해결이 이루어졌을 경우 양측이 얻은 이익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경향이 있다. 통합적 해결을 이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의 확장(expanding the pie), 비특수적 보상, 통나무굴리기 전략(logrolling), 비용절감, 교량가설(bridging) 등을 들 수 있다(Pruitt & Rubin, 1986). 자원의 확장은 갈등이 자원의 부족으로 일어났을 때, 가용한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주의 휴가기간 동안 남편은 산을 가고 싶어하고 여자가 바닷가를 가고 싶어할 때, 휴가를 2주 더 얻어 2주는 산에 가고 나머지 2주는 바닷가에 합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비특수적 보상은 한쪽이 원하는 것을 얻고, 다른 쪽은 그것과 무관한 어떤 것을 보상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재미가 없지만 산에 가기로 동의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새 차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통나무굴리기 전략은 양측이 자신에게 덜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더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가의 장소뿐 아니라 숙박시설 면에서도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부인은 일급 호텔에 묵기를 원하고 남편은 모텔이나 여관에 묵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때 부인에게는 휴가장소보다는 숙박시설이 더 중요하고 남편에게는 숙박시설보다는 휴가장소

가 더 중요하다면, 산으로 휴가를 가는 대신 일급 호텔에 묵기로 하는 것이다. 비용절감은 다른 쪽이 치루어야 할 비용이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면서 한쪽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닷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복잡하고 복잡대서라면, 바닷가에 조용한 안마당이 있는 집을 빌려서 남편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교량가설은 어떤 쪽도 원래 원하던 바를 얻지는 못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만족시켜 줄 다른 방안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숲과 개울에서 가까운 호숫가의 내륙 휴양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실험참가자들이 고안해낸 협상안은 위에 제시된 성공적 문제해결의 결과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가장 큰 총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적 양식이 나타나면 2점씩, 최대의 총 이득을 가져오진 못하지만 성공적인 문제해결과 관련 있는 타협이 나타나면 1점씩,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심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성공적인 타협의 중요한 기제가 되고(Thompson, 1990)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심사를 인정하는 행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므로(Fisher & Ury, 1981)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도 1점씩을 부과하여 합산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연구 2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이 역할을 바꿔가며 여러 이슈들에 대해 생각하고 협상안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이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자신의 결정이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회사 경영진, 정부, 여당)의 평균 통합적 복잡성과 그렇지 않은 경우(노조, 환경단체, 야당, 시민단체)의 평균 통합적 복잡성에 대하여 짝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할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각각 $M=4.19$ 와 3.67), $t(95)=3.86$, $p<.001$. 또한 역할에 따라 개인이 내어놓는 협상안의 통합적 동의를 정도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협상방안의 양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유사한 짝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에 더 통합적인 협상안을 내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M=2.39$ 와 $.96$), $t(95)=8.57$, $p<.001$.

통합적 복잡성 분석

보수성의 개인차변인과⁴⁾ 역할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이슈별로 통합적 복잡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그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한 이슈만을 제외하고는(방위비증강 문제) 역할이 통합적 복잡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입장을 방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성의 개인차 변인은 두 이슈에서만(임금협상 문제와 미군철수 문제) 통합적 복잡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두 이슈에서는 유의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표 5. 통합적 복잡성 측정치의 중다 회귀분석

이슈영역	R ²	B	β	t	p
임금협상 문제	.22				
예측치: 보수성		-.42	-.19	-1.82	.07
역할		1.15	.39	3.78	<.001
군사비지출증강 문제	.02				
예측치: 보수성		-.23	-.10	-.866	ns
역할		.25	.08	.72	ns
댐건설 문제	.08				
예측치: 보수성		-.09	-.05	-.422	ns
역할		.70	.27	2.43	.02
주한미군철수 문제	.19				
예측치: 보수성		-.48	-.20	-1.86	.07
역할		1.115	.36	3.38	.001

협상안의 통합성 분석

보수성의 개인차변인과 역할, 그리고 협상안에 도달하기까지 사고과정의 통합적 복잡성에 따라 협상안의 통합성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역할은 모든 이슈에서 협상안 통합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협상안에 도달하기까지 사고과정의 통합적 복잡성은 한 이슈(군사비지출증강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이슈에서 협상안 통합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즉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리고 더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할수록 더 통합적인 협상안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성

4) 연구 2에서 응답자들의 보수성 평균은 7점 척도 상에서 평균 4.28, 표준편차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 개인차 변인은 두 이슈에서만(임금협상문제와 주한미군철수 문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중 보수성의 개인차 변인은 가치간 갈등의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고과정의 통합적 복잡성이나 협상안의 통합성 분석에서 거의 유의한 변인으로 남지 않았으리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첫 번째 이슈인 노사간 임금협상의 상황에서 대립되는 이익이 개인의 안락과 번영 vs. 집단의 번영이었는데, 이는 Rokeach(1973)의 최종 가치 조사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간 갈등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두 가지 종속변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이 변화하며, 보다 통합적으로 복잡한 추론을 하게되면 대립하는 양측이 모두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상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타협적이고 조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각을 취해보는 것이다.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보고, 각각의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는 바로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의 특징이다. 이럴 때에 가장 통합적인 동의를 이루어질 수 있다.

표 6. 협상안의 통합성에 대한 회귀분석

이슈영역	R ²	B	β	t	p
임금협상 문제	.22				
예측치: 보수성		-.003	-.001	-.014	ns
역할		.68	.27	2.35	.02
통합적 복잡성		.25	.29	2.48	.02
군사비지출증강 문제	.29				
예측치: 보수성		-.41	-.20	-1.97	.05
역할		1.35	.49	4.83	<.001
통합적 복잡성		.08	.08	.78	ns
댐건설 문제	.30				
예측치: 보수성		-.37	.17	1.77	.08
역할		1.18	.43	4.23	<.001
통합적 복잡성		.21	.20	1.95	.05
주한미군철수 문제	.49				
예측치: 보수성		-.04	-.02	-.19	ns
역할		1.08	.33	3.59	.001
통합적 복잡성		.54	.50	5.34	<.001

총 합 논 의

연구 1과 연구 2에 걸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대립되어 있는 이슈들에서 진보성-보수성의 개인차 변인과 여러 가지 상황적 변인들이 추론의 양식과 그에 따른 협상안의 통합성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른 상황 변인들은 가치다원성 모델에서 나온 예측변인들로서 대립하는 가치간 갈등, 그 가치들의 평균 중요성 순위,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었고, 이외에 주어진 역할 변인을 포함시켰다.

가치간 갈등과 통합적 복잡성

Tetlock의 이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보면 개인의 이념적 지향성과 통합적 복잡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로서 *우의의 경직성 가설*과 *상상가 가설*은 모두 부분적으로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성에 기저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즉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그 지향성에 관계없이 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통합적 복잡성이 낮은지, 그리고 중도적인 진보주의자들이 중도적인 보수주의자들보다는 왜 통합적 복잡성이 더 높은지 그 기제에 대한 설명은 없다. 가치다원성 모델은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통합적 복잡성의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차 변인보다는 문제 이슈의 영역, 그리고 그 이슈에서 대립되는 가치들이 개인의 가치체계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의 절대적 크기와 그 유사성이라고 하였다.

연구 1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아주 잘 지지해주고 있다. 즉,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낮은 통합적 복잡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가치갈등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본 연구들에 사용된 여러 사회적 이슈들에서 가치갈등을 적게 느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슈들에서 대립되는 가치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덜 중요한 것들일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치의 중요성과 가치갈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이념적 지향성과 이슈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한 확신도 정도를 종속변

인으로 하여 분석을 했을 때, 통합적 복잡성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보수성만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적어도 두 이슈에서는 확신도를 유의하게 예언해주고 있었는데, 가치갈등과 중요도까지를 포함시킨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이슈에서 유의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확신도 분석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슈들에서 가치간 갈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의견에 큰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통합적으로 단순한 경향이 있었다.

역할과 통합적 복잡성

연구 2에서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의 전환이 통합적 복잡성을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던 사람이 관리직을 맡게 되었을 때 조직 내 이슈들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역할에 따라 잘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뀐 정치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구자숙, 김정현, 1999).

본 연구에서는 역할의 종류를 정당화의 필요성(account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자신의 관점을 타인들에게 정당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보를 보다 복잡하게 처리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Tetlock, 1983b, 1983c; Tetlock, Skitka, & Boettger, 1989). 하지만 정당화의 필요성이 언제나 인지적으로 복잡한 처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타인의 태도를 미리 알고 있지 않을 때는 보다 부지런하게 다각적으로 복잡한 정보처리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Chaiken, 1980; Cvetkovitch, 1978; McAllister, Mitchell, & Beach, 1979; Tetlock, 1981). 하지만 개인이 타인의 태도나 신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게으른 유기체(McGuire, 1969) 혹은 인지적 절약자(Taylor, 1980)로서 최소한의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과 유사한 쪽으로 변화시킨다. 여당은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므로 여당의 입장 표명은 상대방의 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통합적 복잡성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표방하는 입장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낮은 수준의 인지적 복잡성을 나타낼 것이다(Tetlock, Hannum & Micheletti, 1984).

협상안의 통합적 동의성

실험참가자들이 제출한 협상안의 통합성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들은 주어진 역할과 협상안에 도달하기까지 사고과정의 통합적 복잡성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을수록 그리고 통합적으로 복잡한 사고의 양식을 유지하였을수록, 더욱 통합적인 협상안을 내어놓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의사결정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각각의 실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히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의사결정의 형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가간 갈등 상황에서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 행동이, 무력도발이나 전쟁의 발발로 이끄는 정책 행동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간 갈등 상황에서는 회사의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어 장기간의 파업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협상안이 좋은 문제해결이 된다. 이러한 해결책의 좋은 예가 바로 통합적인 해결책이고, 이러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장 큰 총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 통합적으로 복잡하게 추론할 때야말로 양측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가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때로는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 통합적 동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서로의 이익이 완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많은 상황들(제로섬 게임의 상황)이 실제로는 협조와 타협에 의하여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수도 있다.

통합적 동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실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인지를 다시 살피고, 자신의 득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포부를 정하고, 양측의 목표를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는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Pruitt & Rubin, 1986). 이러한 일련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고의 방식이 바로 변별과 통합일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실제 양측의 이익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문제해결을 이끌어 내게끔 작용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의사결정의 상황에는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사고의 양식이 바로 통합적으로 복잡한 정보처리의 방식이다. 추후에는 문헌 분석 연구뿐 아니라 보다 많은 실험실 연구에서 다양한 정책이슈들과 그에 개입된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조작함으로써, 통합적 복잡성과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구자숙·김정현. (1999).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전환이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효과: 신문사설 및 당보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35-52.
- 김정현·구자숙·한준. (1999). 남북관계의 변화가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효과: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5, 139-173.
- Baker-Brown, G., Ballard, E. J., Bluck, S., de Vries, B., Suedfeld, P., & Tetlock, P. E. (1992). The Conceptual/Integrative Complexity Scoring Manual. in C. P. Smith(ed.),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ndbook of Thematic Content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00-418.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52-766.
- Cvetkovitch, G. (1978). Cognitive accommodation, language, and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Psychology*,

- 41, 149-155.
- Fisher, R., & Ury, W. (1981).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Boston: Houghton-Mifflin.
- Katz, D., & Kahn, R. (1978).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 2nd ed. New York: Wiley.
- Kerlinger, F. N. (1984).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e nature and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Allister, D. W., Mitchell, T. R., & Beach, L. R. (1979). The contingency model for the selection of decision strategies: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s of significance, accountability, and reversibil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4, 229-244.
- McClosky, H. (1967). Personality and attitude correlates of foreign policy orientation. In J. Rosenau (ed.), *Domestic sources of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 McGuire, W. J. (1969).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E. Aronson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Vol. 3). Reading, Mass.: Addison-Wesley.
- McGuire, W. (1985).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3rd ed. New York: Random House.
- Pruitt, D. G. (1986). *Social conflict: escalation, stalemate, and settlement*. New York: Random House.
- Pruitt, D., & Lewis, S. (1975). Development of integrative solutions in bilateral nego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21-633.
- Putnam, R. (1971). Studying elite culture: The case of ide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651-681.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1999).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NY: Academic Press.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okeach, M. (1979). *Understanding human values: Individual and social*. New York: Free Press.
- Satterfield, J. M. (1995). *Predicting military aggression, risk taking, and resilience: A psychohistorical analysis of Churchill, Hitler, Roosevelt, and Stali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niderman, P., & Tetlock, P. E. (1986). Reflections on American racism. *Journal of Social Issues*, 42, 173-187.
- Stable, C. B. (1978). Integrative complexity of information environment perception and information us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Decision Processes*, 22, 116-142.
- Stone, W. (1980). The myth of left-wing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2, 3-20.
- Streifert, S., Suedfeld, P., & Driver, M. J. (1965). Conceptual structure, information search, and information uti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736-740.
- Suedfeld, P., & Rank, A. D. (1976). Revolutionary Leaders: Long-term Success as a Function of Changes in Conceptual Complex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169-178.
- Tetlock, P. E. (1981). Pre-to Postelection Shifts in Presidential Rhetoric Impression Management or Cognitive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207-212.
- Tetlock, P. E. (1983a).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18-126.
- Tetlock, P. E. (1983b). Accountability and perseverance of first impress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285-292.
- Tetlock, P. E. (1983c). Accountability and complexity of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74-83.
- Tetlock, P. E. (1984).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Belief Systems in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2), 365-375.
- Tetlock, P. E. (1985). Integrative complexity of American and Soviet foreign policy rhetoric: A time-serie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565-1585.
- Tetlock, P. E. (1986). A value pluralism model of ideologic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19-827.
- Tetlock, P. E. (1993). Cognitive structural analysis of political rhetoric: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S. Iyengar & W. J. McGuire (Eds.),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Tetlock, P. E., Hannum, K. A., & Micheletti, P. M. (1984). Stability and Change in the Complexity of Senatorial Debate: Testing the Cognitive Versus Rhetorical Style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979-990.
- Tetlock, P. E., Bernzweig, J., & Gallant, J. L. (1985). Supreme Court Decision Making: Cognitive Style as a Predictor of Ideological Consistency of Vo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5), 1227-1239.
- Tetlock, P. E., Skika, L., & Boettger, R. (1989). Soci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coping with accountability: conformity, complexity, and bolste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32-640.
- Thompson, L. (1990). An examination of naive and experienced negot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82-90.
- Wilson, G. (1973).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New York: Academic Press.

Integrative Complexity of Reasoning: Pluralistic Value Conflict and Role as Predictors

Jasook Koo* and Kyunghwan Min**

*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predictors of integrative complexity of reasoning and integrativeness of negotiations in policy issues designed to activat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pairs of basic social-political values. In study 1,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integrative complexity of people's reasoning about policy issues could be predicted from (1) the similarity of the importance rankings of the conflicting values (the extent of value conflict), (2) the mean importance ranking of the two conflicting values, and (3)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terms. Individual differences in liberalism-conservatism contributed little to the prediction of integrative complexity after the predictive power of domain-specific value conflict was controlled. The predictions of the value pluralism model were all supported. In study 2, people turned out to be more integratively complex when given a role with high accountability. People also reached more integrative negotiations as the integrative complexity of reasoning increased.

Keywords: integrative complexity, value conflict, conservatism, role, integrative solution

원고 접수: 2001년 7월 4일

심사 통과: 2001년 7월 13일